

독립운동사 뮤지컬 및 연극개발 지원사업 심사평

본 심사평은 연극분야 각 책임심의위원의 심사평을 취합하여 정리한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독립운동사 뮤지컬 및 연극개발 지원사업 심사평(연극분야)

- 일시 : 2011. 3. 24(목) 13:30~19:30
- 장소 : 예술위원회 본관 3층 위원실
- 심의위원 : 이병훈, 김성희, 최현묵, 송현옥, 황치준

독립운동사 뮤지컬 및 연극개발 지원사업에는 총 27개 사업이 지원신청되어 5인의 책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2개 사업을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사전에 서류를 검토한 결과, 심층인터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4개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심의 당일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심층인터뷰는 전체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참여 여부는 당락과 무관하기로 하고 심의에 임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창작소재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예술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역사인식을 고취시켜 뚜렷한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금년도 특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하면서, 심의기준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충실성(40%), 프로그램의 실현 가능성(30%), 해당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30%)를 검토하였다. 소재의 뮤지컬 또는 희곡의 형상화 계획, 제작(프로듀싱)단체의 능력과 실현 가능성이 중요한 판단요소로 작용하였으며, 작품의 고증 및 충실도를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전문가 참여 계획 등도 점검하였다.

총 27개 신청 사업에 대하여 심의위원별 추천을 받은 결과 총 5개의 사업이 추천이 되었고, 제작비가 많이 드는 뮤지컬(음악극) 1편과 연극 1편을 지원하기로 의견이 모아져 2개 작품으로 압축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에서 심청한 음악극 <만주별 호랑이 김좌진 장군>에 4억 5천만원, 극단 민중이 신청한 연극 <거대한 삶>에 5천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주별 호랑이 김좌진 장군>은 김좌진 장군이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위인이며, 독립전투 외에도 새롭게 인간적인 면도 알릴 수 있는 소재가 있어 인물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였고, 신청단체의 기획 등 추진 역량도 기대할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 일치로 1순위에 선정하였으며, 제작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4억 5천만원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런 특별 지원사업은 연극계에 중요한 사업이므로 단발성 행사 성격의 공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 차후에도 유사 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하였다.

- 지원금은 단계별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3회(4월, 8월 텍스트 제출 후, 12월 / 예정) 분할 지급함

- 대본과 작곡 등 텍스트가 완성되면 텍스트와 함께 연출가 등 스태프와 배우 캐스팅 계획을 제출하여 책임심의위원회의 심의(점검)를 받을 것. 책임심의위원회에서는 대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임 연출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거대한 삶>은 만보산 사건을 중심으로 한 독립과 민족의 역사를 조명해보는 작품이므로, 인물 중심의 뮤지컬(음악극)과 비교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 중심 연극을 선정하여 균형을 맞추었다.

두 작품 공히 인물을 지나치게 이상화 하거나 드라마틱한 구성이 부족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하였다.

연극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